

# 플러그인의 활갯짓

글·백광열 편집국장 전기공업신문사

영어사전을 들여다 보면 플러그(plug)라는 단어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개, 틀어막는 것, 치과(齒科)에서는 충전물(充填物), 군(軍)에서는 화문전(火門栓), 총구(銃口)마개, 소화전, 수세식 변소의 방수栓(防水栓)을 의미한다. 그리고 라디오나 TV 프로그램 사이에 끼워 넣는 짧은 광고방송, 선전문구, 씹는 담배, 또 미국에서는 안 팔리는 상품 곧 상품찌꺼기, 늪어빠진 말, 실크모자(hat), 속어로는 일격(blow)까지 실로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전기분야에서 사용하는 플러그가 제일 자주 사용되고 있을 것이다. 점화전(點火栓)이라고 번역되지만 “플러그”가 이미 귀화된 외래어니 그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전로(電路)를 쉽게 접속시키거나 절단시키는 데에 쓰이는 전기기구(器具)이다. 사전에서는 <배선(配線)에 접속하기 위해 코드(cord)의 끝에 부착시키는 접속기구>로서 풀이하고 있다. 여하튼 코드를 배선에 접속시키고자 할 경우 코드 끝에 다는 것으로, 그 용도에 따라 꽂는 플러그, 나사식 플러그, 가분 플러그(可分 : separable) 등이 있다.

기계 쪽에서는 점화 플러그라고 하며 발화전(發火栓)이라고도 하는데 내연기관에서, 실린더안의 연료를 전기 불꽃으로 점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한 플러그는 루어(lure)의 하나이다. 낚시꾼이 사용하는 용어로, 플라스틱이나 발사재(bals材 : 열대 아메리카산의 나무) 등을 사용하여 작은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 부착시킨 낚시용 가짜 미끼(bait)를 말한다. 끌어 당기면 수면에서 미끄

러지거나 몹시 움직인다.

이와 관련하여 영어로 to plug in 하면 “플러그를 끼우다, 코드를 콘센트에 끼우다”를 의미한다. 그래서 to plug in a toaster 하면 토스터에 전원을 꽂다가 된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plug-in 이라는 명사꼴의 새로운 단어가 생겼는데, 일체의 플러그 접속식의 전기제품을 말한다. 이 플러그인(plug-in)은 개개의 전기용품(device)을 의미하며 동시에 전체의 시스템(system)을 지칭하기도 한다.

21세기에는 고해상텔레비전(高解像 : HDTV)과 전기자동차 등 몇가지 제품이 유망제품으로 꼽혀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중 “플러그인” 계통이 유망시된다.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소위 멀티 미디어 교육 플러그인이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을 초월해서 원격화상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불가결의 학습형태이며 세계인으로서의 교양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플러그인 학교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구분없이 교육이 진행될 수 있으며 다양한 실습자료와 정보가 끊임없이 제공되고 전달되며 기자재 또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조달되어 보급된다.

플러그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체와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가능하여 학습을 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에게 멀티미디어 컴퓨터와 같은 매개체를 통해 전문자료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

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는 가정이 학교로 변하므로 학부모는 교사의 역할을 당연하게 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미래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종의 홈스쿨링으로 가정의 학교화가 되므로 부모는 자연히 싫으나 좋으나 교사역할을 해내야 한다.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초기 유형의 시범적 원격화상교육이 시도되기도 하였다고 기억된다. 이러한 가정학교제도하에서는 별도의 역군이며 변화와 개혁의 관리자 또는 쇄신가로서 교사나 학생은 공히 다음과 같은 능력과 자세가 요구된다.

첫째로 사회변동의 역군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새로운 사상이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에 호응할 수 있게 하여 변동을 예측하며 변동에 적응하고 변화와 변동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로 각 영역의 기본적인 기술 소위 The Three R's(reading, writing and arithmetic)에 익숙해야 한다.

『곧 기초학과의 읽기·쓰기·산수에 능해야 하며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은 물론 기술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찾아내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능력(know-where)을 배양해야 한다.

넷째로 국경없는 지구촌시대에 국제인으로서 필요한 덕목으로 꼽히는 외국어를 특히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나라의 문물과 문화를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소화력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로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과거나 전통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이나 과오에서 배울 수 있는 온고지신의 자세가 요구된다.

여섯째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종전의 해결책의 수정보다 새로운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곱째로 분석자겸 종합자가 되어야 한다. 학구적이며 분석자인 동시에 종합자로서의 자질을 배양함은 물론 그 역할을 제 때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당면한 문제를 그 구성요소별로 분석한 다음에 다시 합리적인 형태로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개성이 통합되어 있고 또한 인과관계를 잘 인식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집단적 노력이 필요로 하는 보다 큰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여덟째로 위기관리능력을 키워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유리하게 역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변동과 불확실성을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미지의 세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고 책임있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이홉번째로 성취의 의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무사안일주의적이 아닌 진취적이며 저돌적인 태도를 항상 지향하고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기완성의 내적 만족을 얻으려는 고도의 성취의 욕을 가져야 한다. 열번째로 인간성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만사는 인간이 하며 인간이 스스로 풀어 나가는 것이다. 계속 다가오는 역경과 긴장속에서도 따뜻한 인간미를 견지하고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광범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실로 제일 중요한 것이다.